인쇄여성경제인협의회 김방지 회장

"계미년 새해에는 여성 경영인들이 마음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연말 우리 협의회 회원중 한 분이 가장 큰 거래처를 빼앗겨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며 몇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성 경영인들이 기업을 운영하기가 아직도 많이 힘들어요. 정말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쇄여성경제인협의회 김방지회장(양동문화사 대표)은 정부에서도 여성경영인들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법도 제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해에는 여성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호소할 계획이란다.

"사실 인쇄업은 여성들이 운영하기 아주 적합한 업종이라고 봐요. 인쇄는 한마디로 '예술'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섬세함이 가미되면 정말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여성경영인들의 업체가 부도율이 낮기 때문에 우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들이 운영하기 가장 좋은 제조업종이 바로 인쇄업인 것 같아요"라고 강조하는 김회장은 "수십년째 인쇄업을 하면서 후회해본 적이 한번도 없으며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2001년 7월에 회장으로 선임된 김회장은 "여성경영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정된 물량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남성 경영인들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얼마되지 않는 여성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슬하에 딸 하나를 둔 김회장은 욕심내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오늘의 양동문화사를 이끌고 있단다.

〈유창준국장〉

"여성경영인 권익보호 최선"